

### 진도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 공모 선정

고군면 연동리·향동리, 조도면 나배도리... 60억 확보

진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2027년까지 총 60억원을 투입해 ▲고군면 연동리와 향동리 ▲조도면 나배도리 3개 마을에 생활 인프라 확충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30가구 이상의 마을이 대상이다.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군은 사업을 통해 빈집·노후주택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해 위험지 보강,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 마을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공동체 활성화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인구감소 대응과 함께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살고 싶은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 해남,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지원 확대

톤수 구분없이 모든 어선 가능... '최대 80%까지' 지원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 피해보장을 위한 수산정책보험 지원이 톤수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남군은 기존 10톤 미만(어선), 100톤 미만(어선원) 어선에만 적용되던 재해보험금 지원을 전남도 내 선척지를 둔 모든 어선으로 확대했다.

수산정책보험은 어선의 해난사고, 어업활동 중의 어선·어선원의 사고 및 어업 작업 안전 재해 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 부담 보험료는 20%만 자부담하면 최대 80%까지 지원

해 어업인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원금은 톤수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수협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은 최근 3년동안 총 739건(7,200만원)이 가입한 가운데, 올해는 사업비를 크게 늘려 지금까지 7,700만원을 지원해 어업인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 이상기온 등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어업인이 보험을 가입해 안심하고 어업 활동에 종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 완도 '스마트 관광 지도' 시스템 구축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관광 정보 제공

완도군은 인터넷·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맞춰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는 인터넷 주소창에 'wando.dadoea.kr'를 입력 또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완도군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에는 권역별, 해수욕장, 문화재, 공원, 청산도 슬로길 등 주요 관광지 정보는 물론 내비게이션·길 찾기 기능 등 교통과 맛집, 숙박업소, 행사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지별로 아이콘을 적용하여 관광지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음성 안내 기능과 외국어 기능도 추가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관광 지도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어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시책을 추진하여 관광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 강진 육아수당의 힘, 출생등록자 수 크게 늘었다

1명당 월 60만원... 출생아 59→83명 '경충'

전남 2.7%↓ 전국 4.49%↓...강진 40% 증가

강진군은 민선 8기 역점 시행 중인 육아수당 정책이 출생아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560만 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진군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3명이 출생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 수가 2.7%, 전국 4.49% 감소한 반면,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육아수당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진원 군수의 핵심과 의회의 협조로 탄생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진군은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



는 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만 0세까지는 부모 급여 70만 원을, 만 1세까지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군은 또 기저귀와 체온계 등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300만 원과 미숙

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00만 원을 각각 해당자에 대해 지원한다. 이밖에 난임부부 시술비 110만 원과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 126만 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26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육아수당이 실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만큼,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 '신안천일염' 공급량 김장철까지 걱정 없다

햇소금 내달 본격 출하...하루 2000톤 이상 생산

저장·보관 중인 천일염 물량만도 12만톤 넘어



신안군은 19일 "비금·도초·남신안 등 관내 6개 농협에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햇소금 출하를 계획하고 있으며 김장철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봄철 강우 일수 증가로 천일염 생산량이 평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6월부터는 기상여건이 양호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신안군천일염생산자연화회 이

철순 회장도 지난 15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천일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산을 독려하고, 정부와 군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신안군은 연일 소비불안감을 조성하는 '천일염 품귀현상'과 '소금 대란'을 없앨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농협에 저장 중인 2021년, 2022년산 천일염만 해도 2만t이 넘고, 올해 생산해 생산자 개인창고에

보관 중인 천일염이 약 10만t을 넘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낱씨가 좋은 날엔 하루에 2000t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공급량 부족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신안 천일염의 농·수협 온라인(택배) 판매 중단은 양과·마늘의 정책 수매 일정과 갑작스런 주문 폭주(100배)로 포장인력 부족과 물류 업체의 물량 과다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농협에서는 양과·마늘의 수매가 완료되는 오는 23일 이후부터는 인력을 충원해 유통하고, 햇소금도 본격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음 달 천일염(본격)출하가 시작되면 올해 김장하는 데 지장 없다. 연일 불확실한 추측성 언론보도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면서 "고품질의 신안천일염을 산지에서 적정 가격에 구입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군에서는 749어가, 2367ha에서 매년 4~10월 연평균 약 23만t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 '목포 일주일 살기' 회차별 20팀 모집

목포시가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인 목포문화재단과 함께 3년 연속 '목포 일주일 살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목포 일주일살기는 '한 달 여행하기', '일주일 살아보기'와 같은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이 직접 살아보며 낭만향구 목포의 경험, 감상을 SNS에 공유·홍보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목포 일주일 살기'는 회차별로 20개팀(팀당 1~4인)을 모집하며 총 4회차로 구분 모집한다. 운영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이다.

1~2회차 참가자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모집하며, 운영기간은 1회차는 7월 7일부터 13일까지, 2회차는 7월 25일부터 31일까지이다. 3~4회차는 9월~10월 경 모집 예정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건강의섬 완도

청정완도로 전복

먹으러 갈래?

완도군 전복 홍보대사 영탁